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도자료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2015년 12월 10일(목)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2.10일(목) 오전 06시 이후 보도가능)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정책과 과장 박형건(043-870-5410), 이종현 연구관(5415)

자발적 제품안전생태계 구축, 내부공익신고제 활성화 시급

- 국표원 「2015 제품안전정책 포럼」 개최 -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2015.12.10일 베스트웨스턴 구로호텔에서 '소비자와 함께 하는 제품안전정책'을 주제로 「2015 제품안전정책 포럼」을 개최하였다.
 - 「제품안전정책 포럼」은 지난해 제품안전정책 개발을 위한 국민 참여와 토론의 장으로 창립되었으며,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제품안전협회가 주관하여 정부, 학계, 기업, 소비자 단체 및 협회 등의 제품안전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 포럼에서는 시장 감시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소비자 단체들이 참여한 「제품안전모니터링사업」의 성과 발표가 있었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과징금 도입, 내부자공익신고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 「제품안전모니터링사업」의 성과 발표에서 모니터링사업에 참여한 4개 소비자단체*들은 본 사업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제품안전감시원으로 활동하는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방안, 확인이 어려운 표시사항 개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한국생활안전연합,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제휴안전협회

- 또한 위해제품조사사업에 참여한 3개 단체*들은 시험평가를 실시한 후 부적합업체들에게 시험결과 통보, 업체간담회를 거친 다음 자발적 리콜 시행 등 소비자의 적극적인 제품안전 참여 성과를 발표하였다.

※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학계, 법조계의 안전관련 전문가와 기업, 협회 단체들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 1세션의 주제인 “제품안전생태계 구축과 운영방안”(발표자: 인하대 손동원 교수)에서는 제품안전을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자생적 제품안전생태계 개념을 논의하였다.

- 패널들은 제품안전생태계의 5대 주체로서 정부, 시험/인증기관, 소비자, 제조/유통업자, 협회/미디어 등을 거론하고 각 주체들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 2세션의 주제인 “제품안전을 위한 법적 경제적 제재방안”(발표자: 입법Q&A의 조정찬 대표)에서는 법적 경제적 제재 방안으로 과징금, 이행 강제금, 가산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제안되었다.

- 패널과 참석자들은 가벼운 처벌에 따른 반복적인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위반유형에 따른 강력하고 다양한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부당한 이득 규모가 커지므로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 3세션의 주제인 “소비자 안전과 내부공익신고제도”(발표자: 소비자보호원 김성천 팀장)에서는 내부자신고제도가 제품안전기본법 등 우리나라의 여러법률에 이미 규정되어 있고, 규제기관이나 소비자가 접근 곤란한 내부정보를 신고하는 것은 소비자 안전을 위한 효과적인 예방 수단임이 강조되었다.

- 또한 우리나라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식품안전기본법 등과 내부자 신고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는 미국, 일본 등의 법제동향을 소개 하면서 내부자 신고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 국가기술표준원 제대식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품안전 정책개발에 대한 소비자, 기업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유기적인 협조를 강조하며, 「제품안전정책 포럼」을 제품안전생태계의 플랫폼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2015 제품안전정책 포럼」 세부 프로그램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정책과 이종현 연구관(☎ 043-870-541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품안전정책 포럼」 세부 프로그램

○ 일시/장소 : '15.12.10.(목) 11:00~16:30/ 베스트웨스턴 구로호텔

시 간	내 용		비고
11:00~ (5“)	개회 선언		사회자
11:05~ (5“)	포럼 개회사		제대식 원장 (국가기술표준원)
11:20~ (15“)	제품안전정책 최근 동향 및 안전기준 개선		박형건 과장 (제품안전정책과)
11:25~ (40“)	소비자단체의 시장 감시 활동 현황 - 제품안전모니터링 사업 (4개 단체) * 제품안전협회, 주부중앙회, 생활안전연합, 소비생활연구원 - 소비자단체 위해제품조사 (3개 단체) *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안전 관련 협회·단체
12:05~	오찬 및 네트워크 시간		
13:30~ (60“)	1세션	<제품안전생태계 구축 및 운영방안> - 제품안전생태계의 주축과 역할 - 플랫폼 모델과 인센티브 * 발표자: 손동원 (인하대 교수)	사회자: 이덕주 교수 토론자: 이승우 국장 오춘호 본설위원 문은숙 ISO위원 최금호 KTC부원장
14:30~ (60“)	2세션	<제품안전을 위한 법적 경제적 제재 방안> - 과징금 제도의 도입과 운영방안 - 기타 경제적 징벌 방안 - 제재 강화를 위한 입법 추진전략 * 발표자: 조정찬 (입법Q&A 대표)	사회자: 배병호 교수 토론자: 고낙훈 법제심의관 조상규 변호사
15:30~ (60“)	3세션	<소비자안전과 내부공익신고제도> - 소비자안전관련 내부공익신고 필요성 - 내부공익신고 관련 국내외 법제 동향 - 제품안전기본법 관련 규정과 활성화 방안 * 발표자: 김성천 (한국소비자보호원 팀장)	사회자: 박흥식 교수 토론자: 이상희 부소장 이지문 교수
16:30~	폐회 선언		사회자

포럼 패널 참석자 현황

세션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p>1세션</p> <p><제품안전생태계 구축 및 운영방안></p>	<p>이덕주 (경희대 산업공학과 교수)</p>	<p>손동원 (인하대 경영학과 교수)</p>	<p>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p> <p>오춘호 (한국경제 논설위원)</p> <p>문은숙 (ISO COPOLCO 작업반 공동의장)</p> <p>최금호 (KTC 부원장)</p>
<p>2세션</p> <p><제품안전을 위한 법적, 경제적 제재방안></p>	<p>배병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p>	<p>조정찬 (입법 Q&A 대표, 전 법제처 국장, 법령정보관리원장)</p>	<p>고낙훈 (법제처 법제심의관)</p> <p>조상규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p>
<p>3세션</p> <p>< 소비자안전과 내부공익신고 제도></p>	<p>박흥식 (중앙대 공공인재 학부 교수, 행정학 박사)</p>	<p>김성천 (한국소비자원 팀장)</p>	<p>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p> <p>이지문 (연세대 연구교수, 한국공익신고지원센터 소장)</p>

2015 제품안전위탁사업 현황

- 안전모니터링 사업은 시중 유통중인 불법제품에 대한 감시수행 (4개 기관)
- 위해제품조사 사업은 위해불량제품에 대한 조사수행 (3개 기관)

안전 모니터링 사업	중점관리대상 공산품 (30명) * 완구, 유아동복, 어린이용장신구, 가구, 창문블라인드	소비자교육중앙회
	안전취약계층*(어린이 및 고령자)대상 공산품 (30명) * 최근 5년간 부적합 있었던 어린이용품(학용품 등 23품목) 및 고령자용품(고령자용 목욕의자 등 4품목)	한국생활안전연합
	중점관리대상 전기용품 (30명) * 직류전원장치, 컴퓨터용 전원장치, 형광등용 안정기, 멀티콘센트, LED등기구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사이버 쇼핑몰	한국제품안전협회
위해제품 조사사업	유아용품 위해제품조사 구멍조끼, 아동용놀이매트, 보행기 등	녹색소비자연대
	생활가전용품 위해제품조사 전기레인지, 스팀다리미 등	한국소비자연맹
	레저용품 위해제품조사 캠핑용품(텐트, 코펠 등)	소비자시민모임

* 안전취약계층대상 공산품

어린이 용품(23)	학용품(필통, 연필, 샤프연필, 색연필, 스티커북, 그림물감, 지우개, 유아완구책, 마킹펜 등), 학생용 가방, 어린이놀이기구, 아동용 이단침대, 휴대용레이저용품, 보행기, 이륜자전거, 면봉, 인라인롤러스케이트, 휴대용경보기, 승차용 안전모,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유모차, 유아용캐리어, 비비탄총,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롤러스케이트 보호장구, 유아용침대, 킷보드, 운동용 안전모, 일회용 기저귀
고령자용품(4)	고령자용 목욕의자, 고령자용 보행차,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고령자용 지팡이